

오늘의 날씨와 생활

5월 2일 목요일 음 3월 28일 (5월)

기상정보

맑음

오전	강수 확률	오후
0%	제주	0%
0%	성산	0%
0%	고산	0%
0%	서귀포	0%

해돋이 05:45	해질녘 04:28
해진 19:17	달집 16:41
물때 만조 09:24	간조 03:30
21:46	15:50

오전	강수 확률	오후
0%	제주	0%
0%	성산	0%
0%	고산	0%
0%	서귀포	0%

주간예보		〈문의 ☎ 66번없이 131〉	
내일	맑음	15/23℃	
모레	맑음	15/21℃	

월드뉴스

인도네시아도 선진국 쓰레기로 몸살

작년 호주발 폐기물 5만여t 반입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중단조치로 갈 곳을 잃은 '선진국발 쓰레기'가 주변국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동남아 최대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도 관련 문제가 표면화하고 있다.

1일 주간 탐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동(東)자바주(州)의 환경운동 단체 에코톤(Ecoton)은 지난달 22일 수라바야주재 호주 영사관 앞에서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 수출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단체는 작년 한 해 동안 호주가 동자바주에 수출한 폐종이가 5만 2000t으로 4년 전보다 3.5배로 늘었으며, 이중 상당량이 재활용될 수 없는 상태여서 태워지거나 강에 버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환경운동가들은 호주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중국으로의 수



인도네시아 동(東)자바 주의 환경운동단체인 에코톤 회원들이 시도아르조 군(郡) 중심가에서 쓰레기 하천투기 중단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출길이 막히자 동자바주의 폐종이 재활용 공장 등과 결탁해 의도적으로 플라스틱 등을 섞어 수출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동자바주는 미국, 이탈리아, 영국, 한국 등에서도 폐종이를 수입하지만, 유독 호주에서 수입한 폐종이에 플라스틱과 가정폐기물 등이 다량 섞여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에코톤은 호주발 폐종이를 표본 조사한 결과 약 30%에 플라스틱 폐기물이 섞여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용구 편집국장 김기현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l@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령을 준수한다.

목요일론



류성원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환경공학박사

인간 활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현재 1인당 5t(연간) 까지 증가했는데 기상 이변을 막기 위해서는 1인당 1t 미만 수준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선진국 평균 에너지 소비량이 1인당 6000Wh를 초과하는데 이를 전세계 평균 2000Wh로 줄이자는 스위스 제네바 주정부의 야심에 찬 중장기 에너지 종합계획인 2000 Watt Society가 추진되고 있다. 2000 Watt Society란 '1인당 500 Watt 정도의 화석에너지 소비에 해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제주형 에너지 정책은 무엇인가?

당하며 나머지 1500Watt는 신재생 에너지'로 부터 공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증대 정책과 신재생 에너지 우선시 정책이 전제되어야 한다.

스위스 연방, 제네바 주정부, 제네바 시, 경제 분야 전문단체는 물론 부동산 회사, 건설기업, 에너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 계획인 제네바주정부 에너지 종합계획은 원자력 없는 2000Watt Society를 추구하고 있으며, 민·관·기업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2000Watt 제네바'라는 단체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7개 실행프로그램+6개 지원프로그램' 등 13가지 행동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제네바 주정부 에너지 종합계획의 7대 실행 프로그램에는 첫째,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자원, 둘째, 권역별 에너지 계획, 셋째, 에너지 절약에

필요한 관련법을 적용 건물 건설과 개조를 의무화, 넷째, 소비자들의 건설 및 개조에 신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경제적 지원, 다섯째, 소비자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활용에 자발적으로 참여, 여섯째, 국가 및 공공단체가 에너지 소비에 있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수요자 등 모범 모델을 구축, 마지막으로 에너지 저소비 이동수단을 장려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에너지종합계획의 6대 지원 프로그램에는 첫째, 전문가와 일반대중을 위한 정보제공 및 인식 고취, 둘째, 전문가 육성 및 젊은층 대상 인식 고취, 셋째, 에너지 스탠더드 업데이트를 위한 법률자료 검토, 넷째, 제네바 주 정책시행 후속조치 및 정보 시스템 구축, 다섯째, 정부 에너지국 자원활용 극대화, 마지막으로 공공정책 조율과 네트워크 파트너십 강화 등이다.

정부는 현재 7~8%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대폭 늘릴 예정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 발전을 과감히 감축한다는 제3차 에너지기본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제주도는 풍력, 태양광 및 기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섬으로써 제주도에 전력 소비량의 9.33%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천혜의 자원인 바람과 해양자원을 고갈되지 않는 청정에너지원으로 2030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탄소없는 섬 제주'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에 적합한 에너지 종합정책으로 수정·보완하여 '탄소없는 섬 제주' 구현이 헛구호가 아닌 정책적으로 실현되어, 청정도시로서 '미세먼지 프리 존(free zone) 제주'가 구현되길 바란다.

납세의 의무



강하나
서귀포시 동흥동행정복지센터

국민행복지수 1위로 꼽히는 회계의 나라 덴마크에서는 소득의 약 40%를 세금으로 납부한다. 열심히 일한 나의 '피, 땀, 눈물'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면서도 그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국가로부터 오는 안정감이라고 한다. 이렇듯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복지 등을 통해 결국 우리의 행복으로 귀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금은 표면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가에 내는 아까운 내 돈으로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 세금관련 민원전화를 받아보면, 본인이 부담하게 세금을 많이 낸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납세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없다면, 억울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 아까운 내 돈을 너도나

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벽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벽은 재난재해 혹은 전쟁시 타국으로부터의 국민안전 보장과 같은 거창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비되지 않은 도로를 달려야 할 수도 있고, 길을 걸을 때마다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악취에 시달려야 할 수도 있다. 또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 공원의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돈을 지불해야 할 지 모른다. 그때가 되면 국민을 위한 복지라는 것이 오히려 더 거창하게 느껴질 것이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가 납세의 의무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여행을 바랄 것이 아니라, 성실납세자가 되어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투자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세금을 운용하는 보조자의 역할을 하고, 우리는 국민으로써 납세의 의무를 지키며 감사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세금의 대한 올바른 이해로 억울한 납세자가 아닌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스마트한 납세자가 늘어나길 기대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김효실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방식, 예를 들면 인도변, 심지어 소방도로에 불법 주차자를 하고, 피우던 담배꽂초, 마시던 음료수 컵을 길거리에 버리고, 일회용품들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또 자기 집 앞에 차를 주차한다고 본인의 소유가 아님에도 물통, 벽돌 등을 놓아두는 등의 이런 행태로 계속 살아갈 경우 10~2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해 보자. 어떤 모습이 상상되는가.

그러면 안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한명 두명 쌓여가면 우리 제주는 청정제주가 아닌 쓰레기섬 제주, 무질서한 제주로 바뀔

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활방식을 이어간다면 당신의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생각만 해도 암담한 모습일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눈에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비쳐지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이런 모습에 익숙해져 그런 행동을 하는 어른으로 자라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과연 우리가 아이들에게 "질서를 잘 지켜야 올바른 사람이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될까 의문이다.

앞으로는 인도변 등 주차차 구역이 아닌 곳에는 주차차 하지 않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쓰레기 불법투기 안하기, 남의 집이나 상가 앞에 주차하지 않기, 내 집 및 상가 앞에 물건 적치하지 않기 등 기초질서를 지키는 아름다운 선진시민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자.

우리들의 아이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 그 세상은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내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우리 모두 기초질서 지키기에 동참하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예초기 / Brush Cutter • 잔디깎이 / Lawn Mower • 체인톱 / Chain Saw • 전정기 / Hedge Trimer • 송풍기 (낙엽청소) / Blower

잔디깎이 벌초기계 체인톱

정원산림관리 장비, 농업산업기계, 소형엔진 판매·정비

해록기계

☎ 722-3414~5 757-0165

이도동주민센터 KAL호텔 삼성교 자연사박물관 제주시 삼성로 35(일도2동) 삼성힐 동쪽 다라영 (단독자연사박물관 옆)

기산아파트 해록기계 사무실

Green Clean!

방수

때우지 않습니다!
속속들이 채워줍니다!!!

에코방수?

에코방수란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벽, 창틀, 바닥, 옥상 등의 틈새에 **아크릴수지**와 **마이크로시멘트**를 속속들이 주입하여 안에 있던 물을 밀어내고 **영구적으로 틈새를 채워주어 방수는 물론 단열효과까지** 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수기법입니다.

에코방수

TEL. 064-784-8404, H·P. 010-9086-8965